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열기로 대학은 늘 열대야와 같았다. 당시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강의실이며 학생회의실 같은 공간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였다. 특히 대학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있는 수준이었다. 당시 대학의 보직자였던 나는 대학 교육 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책임 있는 대학 행정 관료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직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다. "아이고 부처장님. 말도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책상이고 뭐고 새로 사줘도 며칠 안가 다 부서집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아이들이 휴지를 다 가져가버려 기성회산 모조리 화장실 휴지 구입비로 투자해야 할겁니다."

보다 1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 겨우 실현되었다. 대학 화장실에 어느 날 큰 두루마리 화장지가 설치되자 처음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져가는 학생도 더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행정 책임자가 격정했던 것처럼 도난에 의한 화장지 구입비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화장지 도난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대학 화장실엔 언제까지라도 화장지가 비치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선진국에 다가설 수 있는 가장 눈에 띈 변화가 바로 화장실 문화의 개조라고 생각한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 일을 보려고 해도 공중화장실은 너무나 지저분하여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하여 어딜 가나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환경과 시설로 바뀌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시민

운동의 하나로 시작한 전국의 공공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는 아마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 화장실 개선 사업은 직접적인 생산성은 없지만 간접효율성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결정적인 결단이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결코 선진 사회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이야기에 대해 귀를

리 밖으로 끌어낸 다음 또 다른 원숭이를 잡아넣으면 역시 간접 경험을 전달 받은 원숭이가 새로 들어온 원숭이에게 바나나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다. 그 우리 속의 원숭이들은 결국 아무도 바나나를 먹지 못한다."

이 원숭이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변화를 가로 막고 있는 편견과 그 편견을 집단 가치로 고정시키면 그 사회는 변화하지 못하는 깊은 침체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 개별적인 체험이 전체 구성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사회적 여론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특히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행정 관료들이나 정치권 리더들이 앞에서 말한 원숭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만일'이라는 위험성의 가정이 따르며,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비효율적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 단계를 슬기롭게 건너뛰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사회발전을 위한 누적된 효율성을 얻어낼 수 있다. 변화를 도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해주는 지도층을 국민은 바란다. <국립국어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기를 어겨야 변화한다

열어두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이치는 바로 변화이며 혁신이다. "원숭이가 맛있는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면 먹고 싶어도 그 바나나에 손을 대지 않는다. 전기 자극을 하는 도구를 제거한 다음에 다른 원숭이를 우리 속에 넣는다. 그리고 바나나를 준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얼른 바나나를 먹으려 달려들면 전기 자극을 경험한 원숭이가 짝싸게 그 위험을 예고하여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만든다. 다음에는 전기자극의 경험을 한 원숭이는 우

시설

北 미사일사태 둘러싼 긴장조성 막아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일부러 날짜를 맞췄다. 거듭된 미국의 경고에 대해 "해볼테만 해보라"고 나온 것이다. 그나마 대륙간 탄도탄급으로 알려진 노동 2호 추정 미사일은 발사후 곧 추락한 것이 최악의 위기를 피한 정도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조치와 한반도에 엄중한 군사적 긴장이다. 미국은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준비된 대응책의 시행에 들어갔고 일본은 곧바로 북측의 만경봉호에 대해 입각 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중국 등은 자국 주재 북측 외교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이래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기조가 순식간에 뒤집힐 위기가 닥친 것이다. 지금 가장 곤란한 처지에 빠진 건 우리 정부다. 북한은 어쨌거나 핵무기 운반수단의 보유를 무력시위하는데 성공

했고, 미국은 대북 제재의 올가미를 더욱 쥐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발생했다며 군비강화에 나설 것이다. 북한을 만류하는데 실패한 중국은 북한을 나무라는 제스처 정도만 취하면 그만이다. 남한정부로서는 북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지만 미·일의 대북 강경책을 마냥 거들 수만도 없다. 개성공단 분야이 시작됐고 관광사업도 이어지고있으며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철도연결문제등을 추진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94년 북핵위기때 같은 남북 긴장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끔찍한 일이다. 청와대가 "모든 사태는 북측 책임"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미·일의 지나친 긴장조성에 대해서는 외교력을 동원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그 일환 북한에 대해 '협박외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정부로부터 돈받는 新聞 몇몇할 수 있나

참여정부가 만든 신문발전위원회가 국내 12개 일간신문 및 인터넷 매체에 157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신문발전위는 "발전기금 지원에 신청한 신문·잡지사들 중 10여 개 항목을 심사해 최종 대상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신문사들은 구조개선 사업·시설도입·경영 컨설팅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씩의 돈을 지급받게 된다. 대부분 경영이 수월하지 않은 신문사들로서는 달콤한 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신문에 돈을 대주는 이 기묘한 현상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신문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신문이 권력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촛불이라도 코웃음을 칠 것이다. 지원을 받는 신문들은 "지원은 지원이고 비판은 비판이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 시혜를

두고 비판을 비판담게 할 수 있다는 건 껌에 불과하다. 신문법의 위헌여부를 다루던 현재 재판관들중 일부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신문은 비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어 신문의 독립과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냈다. 언론학자들도 신문이 파이낸스 서포터(재정지원자)에 의존적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돈을 받는 신문은 정부 기관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신문의 발전, 더 거창하게 말하면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이라는 시혜를 베풀기로 한 법제적 과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후대에, 또 독자들에게 몇몇한 신문이그자 한다면 정부가 쥐고있는 돈자루의 유혹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수공. 마늘·양파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격문제도 농민들의 희비가 교차된다. 다행스럽게 올해는 마늘가격이 예년에 비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양파가격도 높게 형성돼 재배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마늘·양파는 채소류 중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각종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건강농산물이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되는 마늘·양파는 남해의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닷바람(風), 따뜻한 햇볕과 충분한 일조량(光),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水), 기쁜 흥(喜)에서 자라에 타지산에 비해 맛과 향이 우수하다. 여름철 식욕이 저하되고 배가 냉해질 때 효험이 있고,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외 장이 무력해 영양흡수가 잘 안되고, 배변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양파를 공복에 하나씩 먹으면 좋다. 간의 해독기능을 강화시키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방지에도 효험이 있는 것을 동의보감은 전한다. 특히 양파의 경우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재료로도 안성맞춤이다. 양파떡·양파튀김·양파김치·양파장아찌·양파감자부침·양파볶음밥·양파국수·양파스파게티 등 주부들이 양파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다양하다.

독자마당 정진질환 숨기고 치료시기 놓치면 또 다른 사회문제 야기. 일반인들이 정진질환자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폭력성을 든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폭력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폭력의 동기가 양상, 대상자들이 일반인과 다를 뿐이다. 환자들은 누구를 때리라고 명령하는 환청이나,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망상 때문에 자위조치로 폭력 행위를 보인다.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인격장애·조울증 및 기질성 정신장애에서도 폭력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인도 성격·주위환경·인격 등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치료받은 병력을 이유로 현

달력에 '단기연호' 서기와 병행사용 정통성 되살리자. 몇년전부터 달력에 우리나라의 건국 년인 단기연호(權紀年號)가 있다. 단기연호는 단군왕검이 즉위하여 단군조선을 개국한 해인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원이다. 이 연호는 '삼국유사'·'제왕운기'·'세종실록'·'동국통감'·'응제시주'의 고대 문헌에서 그 증거를 찾아 고려시대에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제의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국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민족의식의 고취 등등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연호로 썼다. 지난 1961년 세계공용연호가 되다시피

실체 불분명한 시민단체, 언론이 정보제공 해줬으면. 어떤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면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에는 특정시민단체 회원 10여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대표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서 연설문을 읽는 모습이 보인다. 문제는 이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접하는 시민단체 중 2~3개를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단체가 수도룩하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어 대부

無等鼓.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에 임한다는 '배수진(背水陣)'은 중국 사기(史記)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서기 204년 한(漢)나라 명장 한신(韓信)이 조(趙)나라를 공격할 때 정예병 1만 명을 선발해 조나라 땅 정령의 입구에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했다. 그리고 조나라 군사가 성에서 나와 공격을 하자 한신은 거짓으로 배수진까지 후퇴했다. 배수의 진을 친 한신의 정예병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에 임했다. 조나라 군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한나라 군사를 물리치지 못하고 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조나라 성은 한신이 미리 성채 바로 뒤편에 매복시켰던 한나라 군사에 의해 이미 점령돼 있었다. 한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전투는 길거리에 있는 백성을 몰아가다 싸우는 것과 같기에 그들을 사지(死地)에 몰아 넣어 스

중국산 저질 담배 유입 막기위한 방안 마련해야.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값싼 중국산 담배가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되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산 담배는 암 발생 물질인 카드뮴이 국산 담배의 5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한다. 게다가 독성물질인 니코틴이나 타르 수치가 국산 담배의 몇 배나 높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廣州廣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